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사과데이 캠페인



#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 SHANA TOVA!

Shana tova!(샤나토바)는 히브리식 새해 인사입니다.  
테러와 전쟁의 고단한 삶에서도 '새해만큼은 꿀처럼 달콤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과에 꿀을 찍어 먹으며 샤나토바!(달콤  
한 해되세요!) 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달콤한 사과처럼 '사과'와 '용서'가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  
진실된 감동

# 동감 同感



동감(同感)  
행복한 동행, 진실된 감동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7 JANUARY • VOL. 5



# 동감 同感

## CONTENTS

JAN 2017 vol. 05

- 03 **어느글**  
한해영 관장
- 04 **다시보는 감동(感動)STORY**  
열정과 나눔이 있는 감동 STORY
- 08 **사업소개**  
광교노인상담센터
- 09 **배움으로 만드는 감동(感動)**  
STORY1. '청춘우리' 동아리 사업  
STORY2. 평생교육 문화축제 '어울樂'  
광교가 자랑하는 강력추천 프로그램!
- 16 **나눔으로 만드는 감동(感動)**  
STORY1. 광교시니어재능클럽(G.S.T.C)  
STORY2. 김장나눔행사 '사랑의김장나누리'
- 20 **이웃과 함께 만드는 감동(感動)**  
STORY1. 자원봉사자 · 후원자 송년행사  
STORY2. 하루찾집 '만.나.다'  
STORY3. 귀향프로젝트
- 24 **축하해주세요**  
선정사업, 수상내역
- 25 **상반기 사업 미리보기**  
상반기 사업안내, 2016년 후원금 사용내역
- 28 **기관소개**



발행인 한해영  
 발행일 2017년 1월  
 편집부 서향숙 안지영 김수진  
 편집인 안지영  
 발행처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tel. 031-8006-7400  
 fax. 031-8006-7459  
 홈페이지 www.ggsenior.or.kr  
 인터넷신문 www.ggitjournal.co.kr

## 나이 드는 것의 미덕(The Virtues of Aging)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지미카터 前 미국 대통령이 일흔이 넘어 펴낸 저서의 제목입니다. 지미카터는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재선에 실패한 56세 이후부터의 활동으로 77세되는 2002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적 영향력을 끼친 바 있습니다.

지미카터는 '나이드는 것의 미덕'에 대한 정의를 첫째, 특별한 은혜이고 둘째, 존경할 만한 품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나이드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카터의 메시지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나이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봅시다 즉, '나이드는 것'은 '수동적인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 삶을 영위하며, 타인과 사회를 건강하게 돕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르신'의 현재는 다음 세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미카터가 어머니에 대해 '85세까지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회상하며, 자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지목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도 누군가에게, 특히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그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도 광교노인복지관에서 '나이드는 것의 미덕'을 갖추신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광교노인복지관에서 만나는 모든 어르신들이 '나이드는 것'에 대해 행복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르신들 스스로 그리고 다음세대가 '나이 든다는 건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교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멋진 나이 들'을 응원하며, 어르신들의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관 3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지금의 광교노인복지관이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고 나눔이 있는

# 광고 STORY

지역 어르신,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했던 광고노인복지관의 2016년 하반기에는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요?



- 1 교양강좌 신한금융교실(1일~22일)
- 2 평생교육 대표임원회의(6일)
- 3 건전지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OT(6일)
- 4 교양강좌 약초이야기(14일)
- 5 초복맞이 지역나눔행사(15일)
- 6 찾아가는 건강서비스(20일)  
- 경기의료원 수원병원과 함께하는 이동진료
- 7 경로당 민요수업(25일)



- 1 1,3세대가 함께하는 원어민 영어교실(4일~18일)
- 2 청소년 V-Teen리더스쿨(10일~12일)
- 3 재가어르신 문화체험(17일)
- 4 경로당 하반기 임원진 간담회(19일)
- 5 9988특특쇼 시니어라이어 오디션 참가 (23일)

- 1 9988특특쇼 시니어라이어 예선전 참가 (22일)
- 2 한가위 맞이 행사(8일)
- 3 재가 어르신 영화관람(29일)  
- 롯데시네마 광고 아울렛관 지원
- 4 중소기업중앙회 후원물품 전달식(2일)
- 5 수원인문도시대축제 참여(23일~24일)
- 6 홀몸어르신 정서지원 연합행사(28일)







- 1 건전지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평가회(5일)
- 2 마을복지활동가 발대식(5일)
- 3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문화축제' 행사(11일)
- 4 KT&G복지재단 전국어르신탁구대회 참여(11일)
- 5 재가어르신 추계 나들이(13일)
- 6 후원 캠페인 및 모금행사(15일)
- 7 평생교육 하반기 강사 간담회(19일, 20일)
- 8 자원봉사자 기초·보수교육(21일)
- 9 평생교육 하반기 임원 간담회(26일)
- 10 통통마을시장(27일)
- 11 어르신 동아리 '사진반' 문화체험활동(31일)



- 1 후원물품 전달식(1일)  
- 광고파크자이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협의회
- 2 평생교육 대표임원회의(2일)
- 3 평생교육 동아리 임원 간담회(9일)
- 4 경로당 노인안전교육(11일~28일)
- 5 독거어르신 겨울철 김장행사(16일)  
"사랑의 김장 나누리"
- 6 독거어르신 장수사진 촬영(23일)
- 7 평생교육 문화축제(23일~25일)
- 8 자원봉사 박람회(23일)



- 1 바른세상병원과 함께하는 무릎 건강강좌(1일)
- 2 후원회 일일찾집 하루찾집 "만나다"(5일)
- 3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 감사의 밤(15일)  
"감사해, YOU!"
- 4 하반기 평생교육 임원교육(16일)
- 5 경로당 임원진 간담회(21일)
- 6 복지관 이용자 간담회(22일)
- 7 지역나눔행사 "사과데이"(23일)





# 마음의 보약

상담사 전은주

광고후수공원을 거닐며 마치 나를 위해 만든 것 같은 작은 벤치에 앉아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셔봅니다. 맑은 공기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친몸을 위로하듯 다가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아이처럼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평안하신가요?”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다 어제 있었던 일에 잠시 고개를 멈추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이 농담으로 건넨 한마디가 어느새 제 마음 한곳에 불쾌함으로 파리를 틀고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몰랐던 내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무슨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글쎄... 좀 당황스러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단니..”

“지금도 불쾌함이 있나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내가 어제 기분이 나빴었구나! 나도 몰랐네. 물어봐줘서 고마워”

친구가 된 맑은 공기는 내 마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준 후 인사하며 떠납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잡은 듯합니다.

상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묵은 감정·기억들을 내보내고 따스한 온기를 회복하도록 하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평생 살아온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을 몇 번의 상담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겠지요. 어쩔 불가능한 일인듯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어제와 다른 소중한 지금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평생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마음고생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던 죽음학의 선구자인 Kubler-Ross(1969)는 삶의 마지막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나 해결되지 못한 오래된 문제에 용기있게 직면해서 이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상처가 안에서 끓지 않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2016년 집단상담을 마치신 어르신께서 이러한 소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에 짐이라는 걸 모르고 과거라고만 알고 살아왔고 원망과 탄식등에 매여 있었는데,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속에 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보내는 계기가 되어 내 마음이 심리치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갖게됨은 물론 삶에 욕망과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알게되어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묵은 감정과 새로운 감정의 차이, 나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도움을 주고 배려하여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는 행복을 배웠거든요.”

광고노인상담센터에서는 우리의 마음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되고,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을 때 혼자자 아닌 함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판 노인우울 척도 단축형 (SGDS-K)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예	아니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 하십니까?	0	1
2.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 지셨습니까?	1	0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1	0
4. 생활이 지루하다고 느끼실 때가 많습니까?	1	0
5. 평소와 기본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0	1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 하십니까?	1	0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0	1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1	0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1	0
10. 비슷한 나이에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생각 하십니까?	1	0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 되십니까?	0	1
12. 지금의 나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1	0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0	1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1	0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1	0
총 점		

\* 검사결과가 궁금하실 경우에는 언제나 광고노인복지관 2층 상담실로 연락주세요.

### \* 상담실 이용안내 \*

**심리검사**  
치매검사, 우울검사, 성격유형검사, 상황검사 등

**상담내용**  
치매상담, 가족갈등, 심리적 불편감 (우울, 불안 등), 스트레스

**이용방법**  
2층 사무실 방문.  
☎ 031. 8006-7423



배움으로 만드는 감동 이야기 첫번째, 아리솔 합창단

## '새로운 만남, 즐거운 동행(同行)'

지난 6월, 광고노인복지관 소속의 동아리 합창단 광고시니어과이어 '아리솔'이 창단되었습니다. 한 낮의 뜨거운 햇살이 조금 사그라든 8월, 한달 간의 짧은 연습기간을 보내고 9988특특쇼 현장 오디션에 참가했고, 지휘자 김은경 선생님이 “칠새는 날아가고, 어머니”곡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연습기간이 짧아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관장님과 여러 복지사님의 성원 속에 용기를 내어 연습에 임했습니다. 9988특특쇼는 60세에 은퇴하여 99세까지 팔팔하게 재능을 개발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생을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한 동아리 문화축제라고 합니다. 오디션을 통과하면 100만원이라는 상금도 지원받아 2차 예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행사였습니다. 대회당일 화성에 있는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경연에 참가한 경력이 많은 다른 팀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대 경험이 없는 저희들은 매우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합창, 밴드, 풍물, 댄스 등 다양한 팀들이 최선을 다해 재능을 펼치는 모습에 감동되어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며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예선 탈락을 걱정하며 불안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현장 오디션에 당당하게 통과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선 출전권을 받았을 때는 모두가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얼마나 기뻐했던지. 단합된 모습과 음률, 조화 등 다양한 항목으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무대 위에서의 7분이 우리 아리솔 합창단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된 2차 예선에서는 아깝게 본선 진출할 기회는 놓쳤지만 무대경험을 통해 동아리 활동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단원들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광고노인복지관 시니어과이어 '아리솔'은 긴 노년기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노년에 시작한 동아리 활동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동행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광고시니어과이어 '아리솔' 파이팅!!!



아리솔 합창단 이선숙 부반장







배움으로 만드는 감동이야기 두번째, 연극반 A New Life

## 연극 동아리의 첫번째 공연을 마치고

**추**억이 많아야 인생이 풍요롭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 23일은 내 인생에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만든 날입니다. 광고노인복지관 연극 동아리 "A New Life"의 첫무대 '굿닥터'를 무난하게 소화해낸 날이니까요. 생애 처음으로 '연극 대본'이라는 것을 받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다보니 막막하던 대본도 외워지고 몸짓, 표정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준비했던 연극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느꼈던 안도감과 아쉬움. 두 감정이 교차하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작가, 장관, 부인, 이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연습을 하며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격려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A New Life'라는 동아리 이름처럼 매일 새로운 나날을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연극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여 이웃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연극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A New Life 배우들! 사랑합니다.

A New Life 연극반 장영희



배움으로 만드는 감동 이야기 세번째, 사진반

## 한 장의 사진으로 찾은 자신감

**한**장의 사진을 전시하면서.. 저는 누가 카메라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찍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전시회'에 참여하여 사진 작품을 전시한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진을 찍는 방법은 강의 를 통해 배웠지만 '어떤 사진을 선택하고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분들의 작품사진을 보니 '정말 어떻게 렌즈에 저렇게 담을 수 있을까' 라는 감탄과 '나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나도 그 동안 주제를 가지고 수백 장을 촬영하였으니, 주제에 따라 사진을 선정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접 주제별로 사진을 선택하며 문제를 점검해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마음에 드는 사진 한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진을 다시 바라보고 있자니 촬영 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살아났습니다. 무심코 찍은 사진 속에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있었습니다. 또 한번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다음 출사에서는 좀 더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촬영하고자하는 대상을 먼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사진을 찍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른 많은 사진들의 작품명도 그리 어렵지 않게 붙여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사진반에서 2년간 습득한 기술과 경험은 저에게 사진이라는 값진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다시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고, 어디를 가나 자신감 있게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끌어주신 박호상 사진작가 선생님과 도움주신 광고노인복지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반 정재수 부반장





배움으로 만드는 감동이야기 네번째

# '세대공감 우리의 이야기 어울락'

2016년  
평생교육  
문화축제

김수진 주임 

올해도 어김없이 평생교육 문화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지난 해보다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극반 동아리(A NEW LIFE)에서 준비한 최초공연 굿닥터가 진행되었고, 지하 1층 광고홀 로비에서는 자원봉사 박람회도 진행되어 다양한 어르신 봉사단(네일아트, 수지뜸, 종이접기, 꽃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을 함께 사회에 나눌 수 있도록 재능기부 희망자도 홍보하고 모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자유이용대회가 진행되어 당구, 포켓볼, 탁구, 장기, 바둑분야에서 실력을 겨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주신 임원 분들과 심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날 2층 컴퓨터실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정보검색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수능시험을 방불케 하는 진지함으로 첫 정보검색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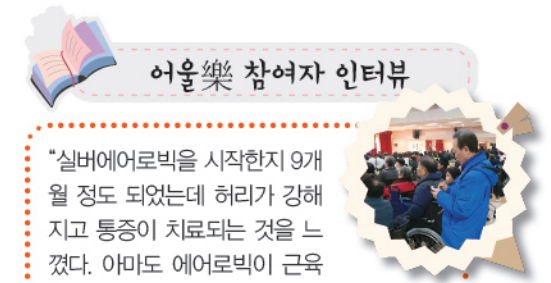
셋째 날에는 어르신, 성인, 아동반에서 준비한 14팀의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발표하는 작품발표회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해주신 모든 공연팀과 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폐막식과 시상식이 진행되어 우수강사 시상으로 영어반의 홍이성 강사님과 웃음교실에 오순복 강사님이 수상하셨고 자유이용대회 및 정보검색대회, UCC경진대회 등 각 분야의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를 3주간 진행하여 정성껏 준비하신 다양한 작품전시를 통해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전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 UCC우수작상영
2. 연극발표회
3. 작품발표회 - 키즈밸리댄스반
4. 작품발표회 - 실버에어로빅반
5. 작품발표회 - 어르신 통기타반
6. 정보검색대회
7. 자유이용대회

### 수상자(분야별)

- 01 우수강사** 홍이성(영어교실), 오순복(웃음교실) 강사
- 02 UCC경진대회** 1)대상 안숙  
2)열정상 김영기, 남해복, 유은서
- 03 정보검색대회** 공동1위 최정호, 손정순  
3위 안광자
- 04 자유이용대회** 1) 탁구대회  
① 한라리그전  
1위 김준호, 이계순, 2위 최숙자, 김영택, 3위 임동엽, 박정옥  
② 백두리그전  
1위 오종환, 김준성, 2위 황진영, 박재욱, 3위 장길자, 이희안  
2) 4구당구대회  
1위 박춘식, 2위 정진환, 3위 고대석  
3) 포켓볼대회  
1위 고재욱, 최화지, 2위 이현복, 문봉연  
3위 윤환, 최귀남  
4) 장기대회  
1위 박상규, 2위 정진해, 3위 이영석  
5) 바둑대회  
1위 명경진, 2위 한유동, 3위 박정석



**어울락 참여자 인터뷰**

"실버에어로빅을 시작한지 9개월 정도 되었는데 허리가 강해지고 통증이 치료되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에어로빅이 근육을 강화시켜준 것 같다. 예전보다 다리가 튼튼해져 걸음을 잘 걷게 되었다"

- 실버에어로빅반 이병경, 이명섭 어르신

"1년 가까이 연극반 동아리 'A New Life'를 이끌어 오는 동안 오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나 열정만 있으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다."

- 연극반 이재홍 강사

"80세가 넘는 나이에 젊음이 못지않은 기량으로 자유이용대회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까지 수고하며 봉사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최금순 어르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신다."

- 탁구반 김청국 어르신

"이렇게 긴장하며 시험을 치뤘던 것이 너무 오랫동안이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나이가 많아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

- 정보검색대회 참여 어르신

"연극공연 출연진이 참 대단하고 전문 직업 배우 못지않다. 특히 공원에서 만난 노년의 남녀가 뜻뜻한 사랑을 키워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작품이었다."

- 광고기자단 김봉집 부단장

**광고기자단이 전하는 어울락 비하인드 스토리**

3일 간의 축제를 취재하며 이번 '세대공감 우리의 이야기 어울락'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場)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축제의 참석자가 관객이 되고 관객이 미래의 참석자가 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진수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니어는 노래다, 춤이다, 힘이다"라고 외쳤던 폐회식 구호처럼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인터넷 신문 '광고기자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르신 밸리댄스반을 소개합니다.

김수진 주임 

밸리댄스는 여성의 신체에 맞게 여성의 몸을 위해 디자인 된 안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댄스가 아니라 복부의 근육과 힘, 가슴의 움직임을 강조한 근육운동이며 간단한 스텝을 이용하여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1. 다이어트 및 몸매교정 효과

밸리댄스는 보기보다 실제로 해보면 운동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힙, 가슴을 격렬하게 흔들고, 상하체 분리를 함으로써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 또는 자신이 잘 모르는 몸 안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어 땀이 많이 나고 몸매라인이 예쁘게 잡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2. 유연성 증대효과

골반, 허리, 팔, 다리, 목, 손목 등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여 여성들의 가사노동, 회사일 등으로 굳어 있는 몸이 매우 유연해지고 뭉쳐있는 근육도 함께 풀어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 3. 변비해소, 요실금 예방

골반, 복부, 괄약근을 많이 이용하는 춤으로 장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출처 : 네이버 Belly School)

다양한 운동효과로 건강도 지키고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는 밸리댄스를 경험해보세요.

수업시간 안내  
매주 수/금  
15:00~15:50,  
지하1층 광고홀

안녕하세요~ 밸리댄스 반장을 맡고 있는 유정숙입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던 제가 이제야 자신을 위해 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답니다. 그러나 몸이 마음 같지 않아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던 차에 밸리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참여하게 되었지요. 젊은 강사님과 함께하니 저희들도 젊어지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우기 시작하니 얼마 되지 않아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들은 열심히 연습하여 공연을 하였답니다. 부족함에도 모두들 박수쳐주시고 칭찬과 격려로 기뻐하셨습니다. 자주하다보니 자신감도 조금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강사님은 한 동작 한 동작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받쳐주는 한 열심히 하여 건강도 챙기고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살려고 합니다. 밸리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광고노인복지관과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화로 배우는 즐거운 영어시간!

##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어동화스토리텔링”

김미경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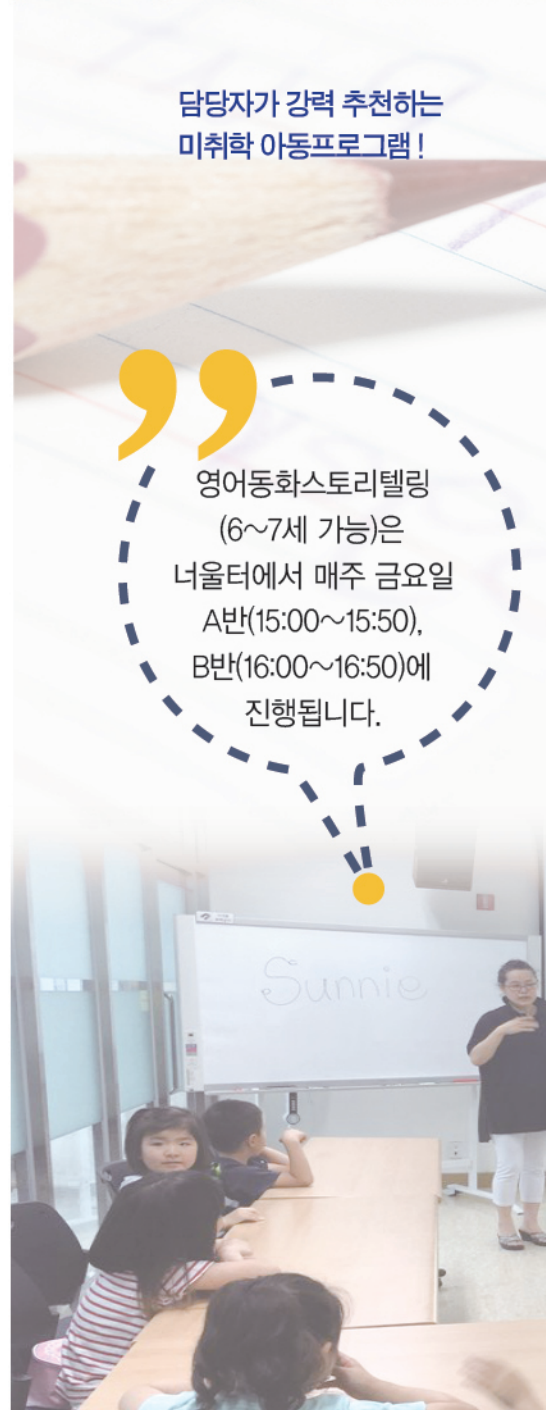
담당자가 강력 추천하는 미취학 아동프로그램!

영어동화스토리텔링 (6~7세 가능)은 너울터에서 매주 금요일 A반(15:00~15:50), B반(16:00~16:50)에 진행됩니다.

6~7세 시기의 아이들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취학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조기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글도 잘 모르는 아이에게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미취학 “영어동화스토리텔링”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아이들은 먼저 재미있는 동화 속 이야기를 접하며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점차 그림을 넘어 동화 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어동화스토리텔링 수업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어 영어에 관심을 가지기 쉽고, 재미있는 동화를 접하며 영어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어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수업에 6개월 간 참여 후 강사에게 직접 영어로 질문할 수준까지 되었다는 점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한 단순 알파벳과 단어를 학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영어를 소리 내어 말하고 발음을 다듬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듣는 '귀'가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지도하시는 강사님이 직접 본인의 자녀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지도하였고, 자녀들이 스스로 영어동화책을 보며 영어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경험할 정도로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저희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재밌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영어동화스토리텔링”으로 오세요!





나눔으로 만드는 감동이야기, 자원봉사사업

## 품격있는 노년을 그린다. 광고시니어재능클럽

# GWANGGYO SENIOR TALNET CLUB

시니어들의 경험,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구성된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봉사단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열정,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시니어봉사단

내 것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니어봉사단

### “꽃으로 봉사하는 우리 - 꽃,봉우리”

꽃차봉사단은 카페인이거나 인공색소가 아닌 특유의 효능을 가진 꽃을 직접 제다하여 차를 마시는 세대와 특성에 맞게 대접함으로써 사랑과 나눔의 향기와 마시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 활동내용 꽃차봉사단 교육/봉사활동, 꽃차 제작·판매, 찾아가는 꽃차서비스
- ▶ 활동시간 주1회 (매주 수요일 10시~12시)
- ▶ 활동인원 5명



### “네일아트봉사단 - 꽃물드림!”

네일아트봉사단은 손끝에서 사랑을 전하는 봉사단으로 지속적인 네일아트와 손마사지 기술 교육을 받아 이를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손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활동내용 네일아트 교육, 봉사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 ▶ 활동시간 월3회 (매월1,2,3주 목요일 10시~12시)
- ▶ 활동인원 3명



### 수원시광고노인복지관

광고시니어재능클럽은 2014년부터 은퇴시니어세대의 기량과 지혜,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신노년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전문봉사단입니다.

광고시니어재능클럽은 <꽃차봉사단, 수지뜸봉사단, 종이접기봉사단, 네일아트봉사단> 총 4개 봉사단으로 조직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종이접기봉사단 - 손,난.로” (손재주로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길로 안내하다.)

종이접기봉사단은 다양한 종이접기 테마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과 활력소를 찾아드릴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육을 통해 1·3세대 소통의 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 활동내용 종이접기 교구 제작 및 봉사활동(광고 내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시설)
- ▶ 활동시간 월2회 (매월 1,3주 금요일 10시~12시)
- ▶ 활동인원 9명



### “수지뜸봉사단 - LOVE HANDLE”

수지뜸봉사단은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수지뜸(쑥)& 손지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며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 ▶ 활동내용 수지뜸&손지압 봉사활동(광고 내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 ▶ 활동시간 월1회(매월 3주 월요일/금요일 10시30분 ~12시)
- ▶ 활동인원 12명



### 수지뜸 봉사단 love handle 참여 후기

수지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광고노인복지관장님 및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뜸 봉사는 2016년 2월부터 월 2회 복지관과 광고 내 경로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은 몸의 축소판으로 손 안에 6장 6부가 있고 손바닥과 손 등에 14 기맥과 345개의 혈점이 있어 수지뜸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 혈의 순환을 잘 되게 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5개월 동안 받은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나누고자, 어깨, 무릎 및 허리통증, 소화불량,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뜬을 떠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강 관리에 작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수지뜸봉사단을 통해 더욱 즐겁고 겸손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수지뜸봉사단 이진 부단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텃밭사업단  
수원나누리병원, 롯데아울렛 광고점의

## '사랑의 김장나누리'

이은정, 민수진 사회복지사

광고노인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자리를 지원하고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텃밭가꾸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텃밭가꾸기사업단은 2015년도부터 복지관 내 조성되어 있는 텃밭에서 매년 20여종의 농작물을 가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활용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3월이 되면 어떤 농작물을 파종할지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홀몸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농작물을 고민하며 가꾸고 계십니다. 그렇게 봄에서 가을까지는 고추, 가지, 오이, 감자, 호박,

고구마 등 홀몸 어르신들이 평소에 드실 수 있는 작물을 수확하고, 가을이 오면 김장에 필요한 배추, 무, 알타리 등을 재배하여 김장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15년에 이어 2016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배추 500여포기가 수확되었고, 지난 11월 16일(수), 홀몸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정성에 수원나누리병원과 롯데아울렛 광고점의 손길이 함께 더해져 풍성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나누리병원 임직원들은 텃밭어르신들이 준비해 주신 김장재료로 직접 김장을 만들어 주시고, 롯데아울렛 광고점 봉사단은 만들어진 김장을 정성껏 박스 포장하여 홀몸 어르신 50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셨습니다.

이날 김장행사에서는 롯데아울렛 광고점의 후원금 전달식과 수원나누리병원의 사랑의 쌀(4kg,40포)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어 나눔 행사라는 의미를 한번 더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날 전달한 것은 비록 김장 한 박스, 쌀 한 포대였지만, 홀몸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온기를 전달해 드린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연말 뿐 아니라 언제든지 관심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본다면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사랑, 감사, 나눔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개인, 단체, 기업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움 주신 텃밭사업단 어르신들과 수원나누리병원, 롯데아울렛 광고점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프로젝트

씨앗부터 김장까지



### 김장행사를 함께 도와주신 분들

- \* 롯데아울렛 광고점 임직원
- \* 수원나누리병원 임직원





## 2016 자원봉사&후원자 송년감사의 밤 감사해YOU



이보영 사회복지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해주시길 여러분! 사랑합니다.”



### 우수봉사자

김월선, 박선영, 심외남, 양홍술

### 우수후원자

다음봉사단, 롯데아울렛광고점, 아미스타

### 포토제닉상 수상

수지뜸봉사단 이진, 홍선옥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있는 12월

수원시광고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꾸준히 활동해주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약 100여명을 모시고 2016년 자원봉사, 후원자 감사송년의 밤 <감사해YOU>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시광고노인복지관의 송년감사의 밤은 2016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아름다운 나눔 활동을 함께 나누며 지지해주는 자리가자 후원자-자원봉사자-직원 간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이번 송년감사의 밤은 성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산타와 함께하는 포토존 촬영과 블루버즈(여성 통기타 4중창단)의 아름다운 화음과 기타의 음률로 자원봉사자&후원자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수원시광고노인복지관 한해영 관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2부 감사행사에서는 2016 광고노인복지관 후원 및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보고, 광고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광고노인복지관 후원회에서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우수봉사자와 우수후원자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직원공연은 재치발랄하게 크리스마스 캐럴송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큰 환호와 기쁨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3부 축제마당에서는 만찬의 시간, 경품추첨과 함께 행사 전 산타와 포토존에서 사진촬영한 분들 중 제일 멋진 분에게 포토제닉상 시상하는 시간으로 아름답고 따뜻했던 송년감사의 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광고노인복지관과 함께 활동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광고노인복지관에 마음을 더해주시는 자원봉사자·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해주시길 자원봉사, 후원자 여러분 감사해YOU!



###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광고 후원회 모금행사

## '하루чат집 만나.다' (만남과 나눔을 잇는 다리)



지난 12월 5일 노인복지 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하여 어르신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수원시광고노인복지관이 주최하고, 광고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광고노인복지관 후원회(회장 김현가)가 주관하여 일일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чат집 만나.다'는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루차집을 통해 '만남과 나눔을 잇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로써 광고노인복지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 및 지역주민 회원과 후원회 등 600여명이 참여하여 기부와 나눔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내 업체 및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하루차집을 통해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나눔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광고노인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 팀장



### 부레주르 광고레미안



☎ 031. 211-7779  
광고 레미안 아파트 앞에 위치한 베이커리, 매일매일 신선한 빵을 판매합니다.

### 김스김밥



☎ 031. 213-0034  
광고2동 주민센터 근처 분식집, 꼬마김밥 맛집입니다.

### 아일랜드 15



☎ 031. 212-1525  
광고카페거리 디저트 카페, 아동 대상 쿠키스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비수제도넛(구 ok컨트리도넛)



☎ 031. 216-0403  
광고카페거리 도넛 맛집, 참쌀로 만든 쫄깃한 도넛이 일품입니다.



# 귀향- 40년만의 만남

전은주 상담사



우○○어르신(80세) 댁에서 방문상담을 진행하던 어느 날, 어르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 볼까 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마다하시기에 모르는 척 “다음 주 올 때까지 써주세요. 숙제입니다.”를 외치며 나왔습니다. 일주일일이 지나고 혹시나 하는 마음과 호기심을 안고 어르신 댁에 방문하였는데, 어르신은 저의 걱정과 달리 정성껏 작성된 버킷리스트를 수줍게 내미셨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성스레 작성된 종이를 내미는 손은 주름지고 검버섯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그보다도 아름다운 손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킷리스트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곳에서 눈길이 멈춰졌습니다.

### 버킷리스트 7번. 어머니 산소가기, 고향가기

그 순간 '이 소원만큼은 우리복지관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는 누가 있냐고 여쭙었고, “형님이 살고 계셨는데, 지금은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와 40년 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연락이 잠시 끊어졌고, 급하게 이사하면서 모든 연락처를 잃어버려 왕래가 없어졌다는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단한 삶을 사신 것이겠지요. 마음속으로 어르신을 응원하며, 형님이 보고 싶

으신지 물었고, “형제인데 당연히 보고싶지. 작년 고향마을에 가는 지인차를 얻어 타고 어머니 산소는 잠깐 다녀왔는데, 형님 댁에는 가보지 못했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에도 40년의 세월을 넘어 성큼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복귀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와 함께 어르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례회의를 진행하였고, 어르신과 형님의 재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담사는 어르신의 떨리고 복잡해지는 심리·정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복지사는 면사무소, 이장님을 통해 형님과 연락을 취한 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최대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고향방문일. 어르신과 저는 차를 타고 86km를 달려 고향에 도착하였습니다. 잠깐 어머니 산소에 들러 묘를 정리하고, 형님 댁으로 출발하려하는 그때,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집에 가야겠어.”  
만남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함께 느꼈기에 잠시 흠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형님 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다시 길을 달려 산 아래 한 오래된 농가에 도착하였고, 마침내 어르신의 형님과 형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며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떻게 지냈냐?”, “살아 있었냐?”, “살아있으니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대화 속에 놀라움과 기쁨, 또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기념으로 사진도 찍으며 짧은 만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 형님과 형수님을 뒤로하고 어르신의 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어르신의 이야기.

“보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표현을 잘 못한 건 사실이며, 오랜만에 보니까 서로 웃고 안부도 묻고 그러다 보니 갈 시간이 되어서 심적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별로 못했어. 조카애들은 잘 있는지, 뭐하는지, 보고 싶었다고도 말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보니 조카도 애들이 아니네.. 내가 80이니까 조카들도 60이 훨씬 넘었겠지..? 내가 업어주는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네.(하하하) 사실 형수님한테는 서운한 게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하겠어. 내가 얘기할 처지도 아니고, 그냥 형님과 형수님이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때도 그랬잖아 형님이 86세인데 내가 더 늙어 보인다고.. 다음에 고향에 간다면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얘기하고 싶고, 동네에 아직 살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보고 싶어.”

돌아오는 길, 다음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 없이 객지에서 복지관을 가족처럼 의지하며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잠시나마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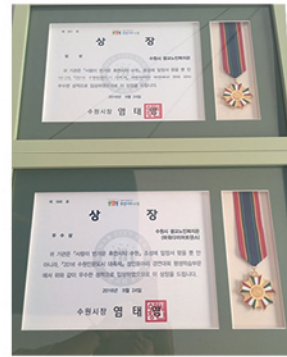
위 내용은 어르신의 동의를 얻고 작성된 글입니다.



축 · 하 · 해 · 주 · 세 · 요

## 수상을 다함께 축하해주세요

- 신영철 어르신 | 2016 수원문화원 대한민국 정조대왕 서화대전 '특선'
- 정창학 어르신 | 2016 수원문화원 대한민국 정조대왕 서화대전 '입선'
- 김순희 어르신 | 2016 수원문화원 대한민국 정조대왕 서화대전 '입선'
- 오형환 어르신 | 2016 수원문화원 대한민국 정조대왕 서화대전 '입선'
- 김나리 주임 | 2016 제 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 김나리 주임 | 제 20회 노인의 날 기념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수원시의회의장상'
- 윤보경 주임 | 2016 수원시 사회복지 경진대회 유공자 표창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
- 김수진 주임 | 2016 수원시 사회복지 경진대회 유공자 표창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
- 수원시광고노인복지관 | 노인보호 우수기관 '경기도지사상'



축 · 하 · 해 · 주 · 세 · 요

## 공모사업 선정을 다함께 축하해주세요

- '마을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투게더우리사랑지원제 선정 | 우리은행
- '저소득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희망나눔 지원사업 선정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수원시 인문도시대축제(체험부스, 공연, 전시) 참여기관 선정 | 수원시



## 2017년 상반기 주요행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2016년 후원금 사용보고

기간 : 2016년 1월 ~ 12월

2016년 세입		2016년 세출	
2015년 이월금	26,618,007	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27,900,000	재가복지사업비(결연후원금, 밀반찬배달사업)	5,36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IT기재단)	10,004,260
		우리은행(마을활동가사업)	3,000,000
		지역특성사업비	989,220
비지정 후원금	55,733,750	비지정후원금	
		사업비	40,968,122
		운영비	12,059,860
총계	110,251,757	총계	72,381,462



# 01

나눔  
기쁨  
따뜻한  
세상  
<후원사업>

## 비지정 후원

### • 개인(정기후원)

강동엽, 강혜용, 구길희, 권오상 권용수, 권진희, 김기자, 김나리, 김명진, 김보람, 김성기, 김소희, 김수진, 김은경, 김일환, 김재용, 김태은, 나지현, 나혜경, 박요옥, 박상운, 박효주, 반윤기, 변미진, 변영금, 서하니, 서향숙, 설웅재, 성기철, 손순영, 송광선, 송태진, 신연경, 안지영, 안지은, 안창식, 안화영, 염혜진, 오경선, 오장근, 오혜정, 윤강웅, 윤명희, 윤석용, 윤양희, 이경민, 이교수, 이동훈, 이병선, 이보영, 이상준, 이선이, 이수천, 이승수, 이연희, 이정희, 이필창, 이호민, 이호열, 전수완, 전춘이, 정순옥, 정순자, 정창대, 조완석, 최병숙, 추예진, 한혜영, 홍승수

### • 개인(비정기후원)

고연석, 고영권, 구자인, 권열웅, 김가연, 김경희, 김규정, 김기근, 김영훈, 김용현, 김운학, 김정숙, 김현, 남천우, 민수진, 박두원, 박요옥, 박보연, 박상운, 박상원, 박영남, 박정자, 방용호, 백종철, 변영섭, 설기환, 손순영, 송규숙, 송선복, 송태진, 원혜식, 유덕화, 유승화, 윤대영, 윤정윤, 이다혜, 이덕재, 이부영, 이승수, 이용훈, 이은정, 이정희, 이주희, 이차숙, 이호열, 임은정, 장미영, 장소영, 장혜령, 전문배, 정경희, 정의섭, 조병현, 조상우, 조재원, 조해진, 진철, 최윤정, 최혜원, 최호인, 황혜련

### • 단체

(주)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주)액티브온,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 SK청솔노인복지관, 까치공인증개사, 꽃차봉사단, 광고방법기동순찰대, 광고시니어IT기자단, 광고시니어콰이어, 광고여성합창단, 광고1동새마을문고, 광고1동새마을부녀회, 광고1동주민자치센터, 광고1동주민자치위원회, 광고1동통장협의회, 광고2동주민자치센터, 광고2동통장협의회, 광고종합사회복지관, 광고카페거리 상가변영회, 광고카페거리 안전지킴이, 그리심농원,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다음봉사단, 도시와농촌, 로템나무, 리에또, 버드내노인복지관, 버드내재가노인복지센터, 붉은못허브팜, 삼성웰스토리(주), 서호노인복지관, 쇼유, 수원굿윌스토어, 수원시광고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아워홈, 엘리스토리커피북는집,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중소기업은행 광고중앙지점, 지구촌교회 늘푸른 4목장, 텃밭봉사단, 커피플러스, 케이비시스템(주), 하모니마트 효원점, 향아리보쌈 광고점

## 지정 후원(결연후원, 사업지정후원)

### • 개인

김민석, 김신용, 김정숙, 김용현, 조현혜, 한만영

### • 단체

(주)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주)비엔투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삼성카드열린나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물품 후원

### • 개인

권진옥

### • 단체

(주)교촌에프앤비, (주)알진인터내셔널, 금강산삼계탕, 노스페이스 가든파이브점(문정동점), 농업회사법인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 유한회사, 대성농장생오리, 더사랑의교회, 뚜레주르광고래미안점, 롯데마트 광고점, 삼송행집 광고점, 수원나누리병원, 수원푸드뱅크, 쓱떡콩떡, 주식회사 에바텍코리아, 아미스타, 하모니마트 효원점,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고지사

나눔  
STORY

# 02

나눔  
기쁨  
따뜻한  
세상  
<자원봉사사업>

## 개인 봉사자

### • 경로식당

김성숙, 김영숙, 김월선, 김정수, 김정애, 김혜숙, 노영숙, 박선영, 백창숙, 조영숙

### • 도시락배달

구정희, 권혁진, 송동순, 심외남, 안수현, 양홍술, 이부영, 이태련, 이혜옥, 이현복

### • 카페테리아

강민주, 김정민, 장혜진

### • 재가복지

김주리, 박희순, 배정미, 백설희, 이금애, 장은옥, 최예은, 한정희, 황혜련

### • 이의중학교 가족섬김봉사단

(강건석, 강준구, 김경리, 김규호, 김성태, 김현정, 손승민, 오은경, 이은경, 임영경, 전시원, 최강규, 최광희, 최지숙, 최하현, 한명규, 한준규, 황혜영)

### • 행사 및 행정

김윤하, 이성지

### • 시니어 교육 지원

김현순

## 단체 봉사자

광고고등학교, 다비치안경점(광고점), 다음봉사단, 동화세상 에듀코(주), 롯데아울렛광고점, 삼성SDS, 이의고등학교, 이의중학교학부모회, 장안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고지사

## 시니어 봉사단(종이접기, 네일아트, 꽃차봉사단, 수지뽑)

김명자, 김인숙, 김용미, 고광임, 고정숙, 권정연, 리종은, 박상귀, 박순애, 박신자, 박인자, 박홍주, 서정자, 송재동, 심경순, 염경식, 위갑순, 위순자, 윤희환, 이인호, 이진, 장길자, 정인옥, 조태순, 진미숙, 최용석, 홍선옥, 황정희

## 광고IT기자단

구효종, 권열웅, 김남자, 김봉집, 김영기, 김청국, 노종태, 박종순, 서민자, 서정일, 선경석, 손순애, 안숙, 염재준, 유은서, 이은하, 장경애, 장신홍, 황선영

## 나눔 실천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환영합니다!  
복지관을 방문하시거나 유선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문의! 031-8006-7401 / 후원 문의! 031-8006-7405  
홈페이지 <http://www.ggsenior.or.kr> 나눔마당 참조

기업은행 944-001164-01-071 | 하나은행 913-910005-12104  
예금주 수원시광고노인복지관

광고노인복지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눔  
STORY